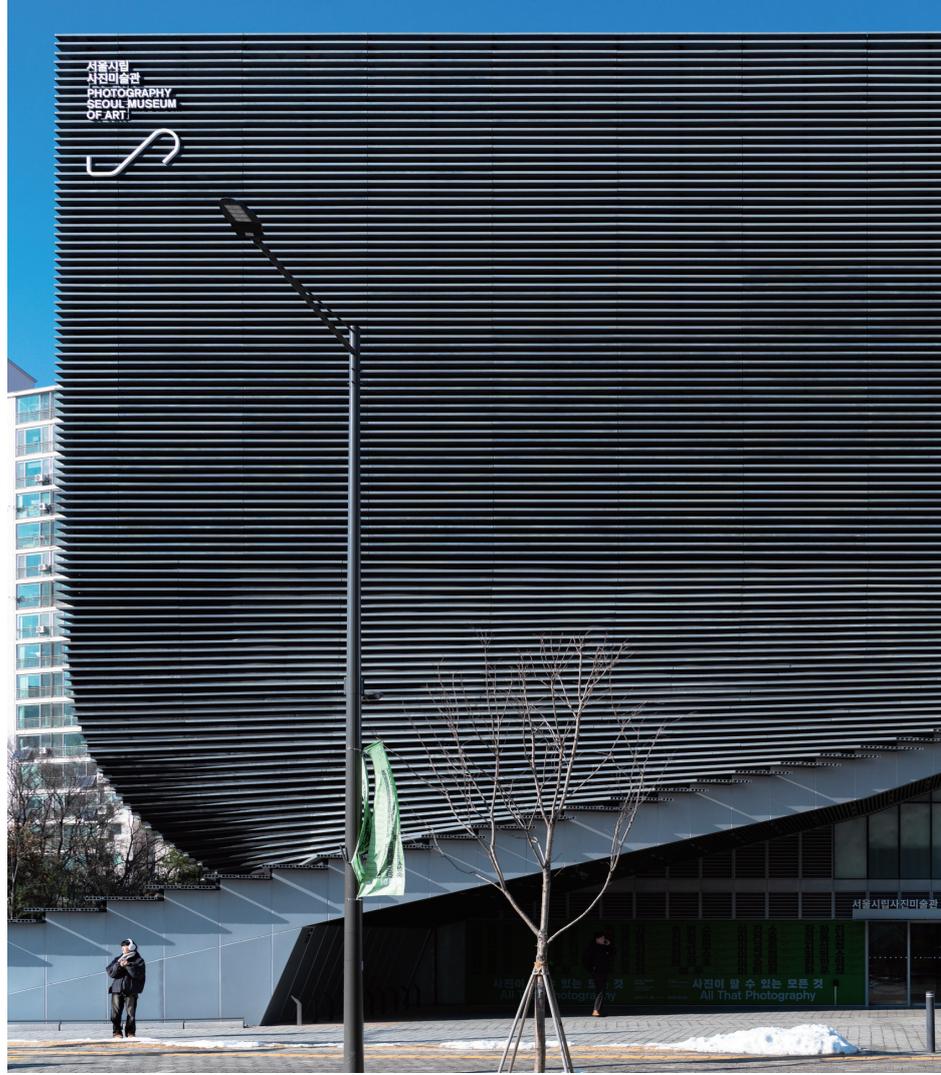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PhotoSeMA

2025년 5월 서울시 창동에 개관한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은 국내 최초의 사진 전문 공립미술관이다. 국내외 사진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 관련 강좌와 세미나를 통해 사진의 예술적 가치를 다방면으로 경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육면체를 비틀어 회전시킨 듯한 건물의 외형 역시 카메라 렌즈의 조리개가 열리고 닫히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직선을 층층이 겹쳐 쌓은 외벽은 시간에 따라 검은색에서 회색으로 이어지는 그라데이션을 만든다.



↓ 사진 미술관은 4층 규모로 전시실과 교육실, 부대 시설로 구성 - 각 실의 전경

4	포토라이브러리 PHOTO LIBRARY 1 교육실 1 LEARNING STUDIO 2 교육실 2 LEARNING STUDIO 사무실 OFFICE	♿ ♿ ♿
3	3 전시실 3 GALLERY 4 전시실 4 GALLERY	♿ ♿
2	1 전시실 1 GALLERY 2 전시실 2 GALLERY 영상홀 MEDIA HALL	♿ ♿
1	로비 LOBBY 물품보관함 LOCKERS 포토북카페 PHOTOBOOK CAFE 가족휴게실/수유실 BABY-CARE ROOM	♿ ♿ ♿ ♿ ♿
B1	주차장 PARKING	
B2	주차장 PAR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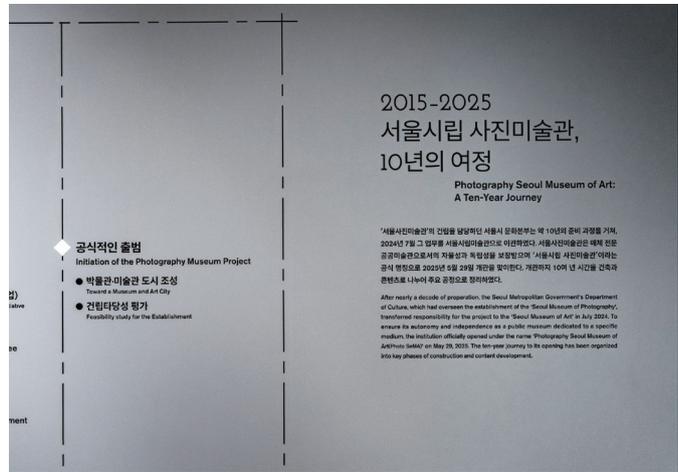


사진 전시실 입구에서 미술관의 건립 취지와 연혁을 볼 수 있다.

네 개의 전시실은 형태와 분위기에 차이를 뒀다. 직각 벽이 없는 비정형 공간인 1 전시실은 그 자체로 기존 미술관과 다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벽면의 회색 콘크리트로 마감은 설치형 작품과 영상 매체 전시에서 상승효과를 보인다. 로비 쪽으로 열린 벽을 통해 건축 내부를 감상하는 재미도 있다. 정방형 공간을 흰색으로 칠한 3층 전시 공간은 인화지 중심의 전통적인 사진 전시에 적합하다. 전시와 작품의 특성에 맞춘 공간 활용을 확인하는 것도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을 즐기는 방법이다.



사진 포토라이브러리와 교육실, 암실은 사진 예술을 폭넓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사진 출처: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4층에는 포토라이브러리와 교육실, 암실 등의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다. 사진 전문 도서관인 포토라이브러리에서는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내외 관련 도서와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다. 두 개의 교육실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과 미술관 도슨트 양성 과정 등에 사용된다. 전문 인화 장비를 갖춘 암실은 사진 전문 미술관의 특성을 살린 시설이다. 1층에는 사진을 테마로 한 북카페 '카페 Photo SeMA'가 있다. 사진의 시각 프레임과 빛의 삼원색(빨강, 녹색, 파랑)에서 영감을 받은 가구들과 사진 관련 서적, 전시 도록 등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서울시립사진미술관



개관특별전 <사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2025년 5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은 개관특별전 <광채光彩: 시작의 순간들>, <스토리지 스토리: 또 다른 이야기>를 동시 개최했다. <광채光彩: 시작의 순간들>은 188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사진사에 큰 족적을 남긴 다섯 명의 작가 정해창, 임석제, 이형록, 조현두, 박영숙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스토리지 스토리: 또 다른 이야기>는 지역 커뮤니티인 미술관의 건립 과정에서 영감을 받았다. 건설 현장의 모습과 그 과정에서 발굴된 물품, 설립 부지가 있는 창동의 역사적 기록들을 재료 삼아 기록 매체로서의 사진의 속성과 역할을 탐색했다.



사진 한국 사진사의 첫걸음을 살펴 본 <광채光彩: 시작의 순간들>



사진 사진 매체의 속성을 탐구한 <스토리지 스토리: 또 다른 이야기>

한국 사진 예술의 발자취에 대한 탐구는 세 번째 개관특별전으로 이어졌다. 2025년 11월 26일부터 2026년 3월 1일까지 진행된 전시 <사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한국 현대미술의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1950년대부터 30여 년 간 이어진 변화와 흐름을 비췌다. 1957년 설정된 <모던아트협회>, <창작미술가협회>, <신조형파>, <현대미술가협회>의 실험적 작품을 모은 1 전시실이 시작이었다. 이후 각 전시실은 1980년대에 다다를 때까지 연대별로 나뉘고 또 이어졌다. 네 개의 전시실을 순서대로 지나는 동안 감정에서 관념으로 표현의 중심이 바뀌고 시대에 발맞춰 그 쓰임새 역시 달라지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었다.



사진 전통적인 사진부터 회화와의 결합, 촬영 과정이 기록된 자료들을 통해 사진 매체를 다방면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사진과 회화, 조각, 설치를 접목하거나 당시 신생 매체였던 영상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로 빛은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서로 다른 사진을 오려 붙인 포토몽타주 기법을 선보인 이승택(1932)의 <매달린 성>, 사진과 회화, 판화의 표현 방식을 한 화면에 교차시킨 김구림(1936)의 <누드>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사진 이승택 <매달린 성>(사진 출처: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사진 김구림 <누드>(사진 출처: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1 전시실에서는 김구림(1936) 작가가 만든 한국 최초의 실험 영화 <1/24초의 의미>가 재생됐다. 36명의 작가들이 남긴 200여 점의 작품, 100여 점의 자료들은 사진뿐만 아니라 사진을 매개로 한 회화와 설치 미술 등의 작품들을 망라했다. 개관 후 처음으로 네 개의 전시실을 모두 활용한 전시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제공하는 도슨팅 앱으로 진행 중인 전시 및 작품 정보를 확인하고 주요 작품의 오디오 가이드 기능도 이용할 수 있었다. 전시장에 배치된 큐알(QR)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거나 App Store(애플 iOS), Play 스토어(구글 안드로이드)에서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도슨팅'을 검색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은 세 번의 개관특별전을 통해 한국 사진 예술의 역사를 살펴보고 사진 매체의 가치와 영향력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6년 3월 1일까지 열린 <사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전시 이후에도 사진 예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전시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올봄에는 서울시립 사진미술관과 이곳에서 열릴 전시에 주목해 보자. 현대의 기본 소통 수단을 넘어 사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탐구할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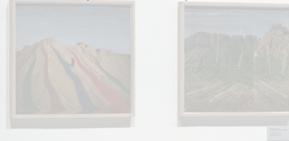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도슨팅 앱은 전시, 작품 정보와 오디오 가이드를 제공한다.



필자 | 김성주

여행 작가 겸 사진가. 올림푸스 마스터즈 포토그래퍼. 스마트폰 사진 클래스 진행.

저서: '어쩌면 _할 지도', '인생이 쓸 때, 모스크바', '그래서 제주'(공저)



- 주소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3길 68 (창동)
- 관람시간 : 화 ~ 금 - 10:00 ~ 20:00 /
토, 일, 공휴일 : 10:00 ~ 19:00(하절기), 10:00 ~ 18:00(동절기)
- 휴관 : 1월 1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 개관)
- 관람료 : 무료
- 문의처 : (02) 2124-7600
- 홈페이지 : <https://sema.seoul.go.kr/kr/visit/photosema>